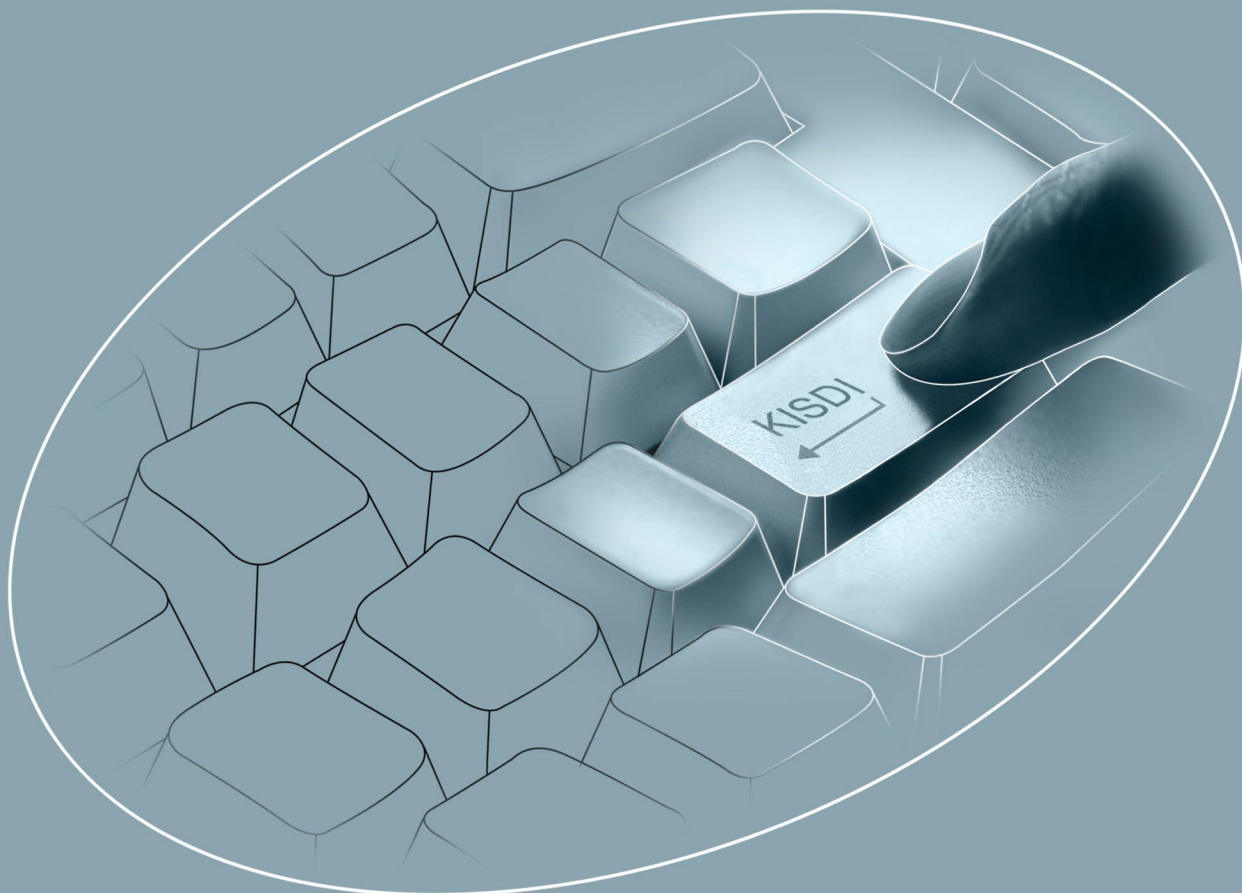


KISDI 이슈 리포트

최근 통신시장 현황 및 시사점

박종훈, 권영주, 한용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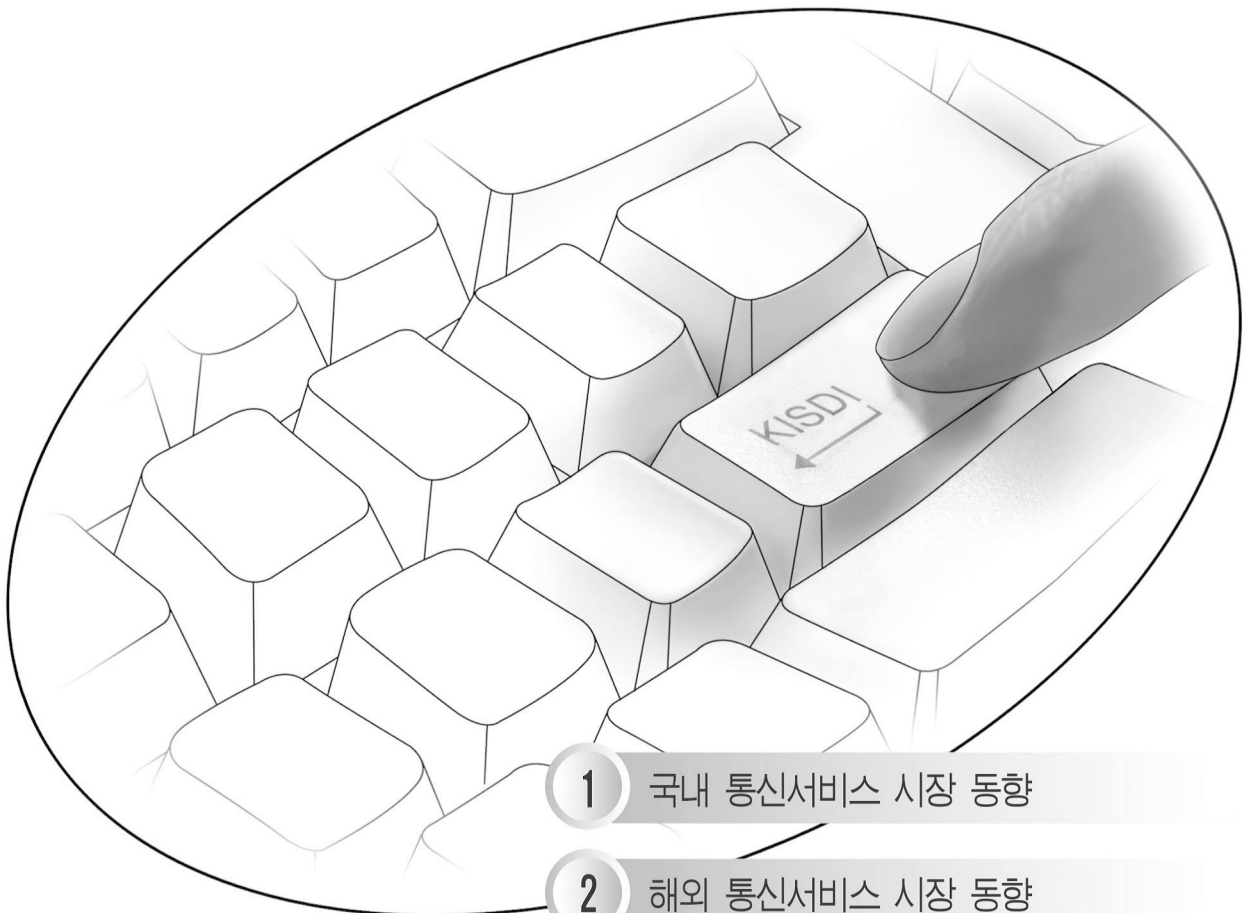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이슈 리포트

최근 통신시장 현황 및 시사점

2003. 6. 4

박종훈, 권영주, 한용규



- 1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동향
- 2 해외 통신서비스 시장 동향
- 3 정책적 시사점



박종훈

- chpark@kisdi.re.kr, 02-570-4390
- 미 Wisconsin-Madison 대학 경제학 학사
- 미 George Washington 대학 경영학 석사
- 미 Northwestern 대학 경제학 박사
- 현 통신방송정책연구실 통신정책팀장
- 저서 : 「인터넷전화 시장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정보통신부문 규제개혁방안」 등

권영주

- milip@kisdi.re.kr, 02-570-4164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한국금융연구원 비은행금융기관팀 연구원
- 현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원
- 저서 : 「결합상품 및 서비스 규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의 사례별 현황」 등

한용규

- yong0917@kisdi.re.kr, 02-570-4122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현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 저서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세부방안 연구」 등

요 약

최근 통신시장은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디지털화와 광대역화되고 있으며, 서비스간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과는 달리, 통신사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3G 서비스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침체 및 경영난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은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현상과 더불어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02년에는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연평균 비중이 전체서비스업 지수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2003년 1/4분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증가율이 전체서비스업의 지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세 역시 둔화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오던 통신서비스업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의 둔화 속에서도 핸드폰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인터넷게임, 인터넷방송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정보제공서비스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1.5%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통신시장의 견인차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통신시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대다수의 유선사업자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따라서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다. KT는 전화, LM, 전용회선 시장에서의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의 우려 속에서도 초고속매출의 꾸준한 성장으로 기존 총매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나로통신은 영업손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영업외손실의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어 재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데이콤은 적자국면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시장에서의 파워콤과의 시너지를 통한 매출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온세통신의 경우 초고속시장의 포화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인 50만명의 가입자를 유

치함으로써 생존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SKT는 브랜드이미지를 바탕으로 매출수익성과 시장에서의 선도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데이터매출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반면, KTF의 경우 기존 가입자 유지에 중심을 둔 소극적 마케팅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수익성은 소폭 상승하였다. LGT는 음성시장에서의 저조한 실적과 무선데이터영역에서의 소극적 마케팅활동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용의 동반 감소로 수익성은 향상되었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해외 통신시장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2003년 1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통신사업자의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음성시장의 하강국면에 대해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입 및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유럽은 3G서비스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광대역인터넷서비스 및 무선데이터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 또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광통신망(FTTH, Fiber To The Home)의 보급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이 정체되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선발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2.3GHz, VDSL, EVDO)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후발사업자는 경영난에 서비스 제공 능력의 격차까지 가세되면서 더욱 어려워지는 상태이다. 따라서 통신시장의 성장, 망의 고도화 그리고 경쟁적 시장구조 정착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온세통신 및 두루넷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며, 하나로통신 역시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VDSL을 비롯한 KT의 초고속인터넷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되리라고 보

최근 통신시장 현황 및 시사점

여 진다. 따라서 정부의 통신시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할 수 있는 LM시장의 개방, MVNO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동향

가) 통신서비스 시장 개요

2003년 1/4분기 중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통신서비스 시장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보였으며 성장 속도도 둔화되고 있음

- 2003년 1/4분기 중 국내 경기는 전반적인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음
 - 소비는 전년 11월 이후의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평균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 제조업 주요 업종의 생산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생산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
 - 실업률은 2003년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2002년 2월중 실업률 3.7%), 2003년 3월중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전체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
 -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 6조 275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한 반면,
 -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 8,1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 기간통신서비스 중 전화서비스의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3% 감소
 - 이는 별정통신 서비스사업자가 국제 전화를 중심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내·외, 국제전화서비스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부가통신서비스는 핸드폰 벨소리다운로드 등의 다양화와 인터넷게임, 인터넷 방송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51.5% 증가하였음

최근 통신시장 현황 및 시사점

<통신서비스 매출액 전년 동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02 1Q	'03 1Q	전년 동기대비
전체	7,361,014	7,346,768	-0.2
기간통신서비스	6,359,893	6,207,474	-5.2
별정통신서비스	280,657	328,061	16.9
부가통신서비스	720,464	811,233	12.6

(자료) 정보통신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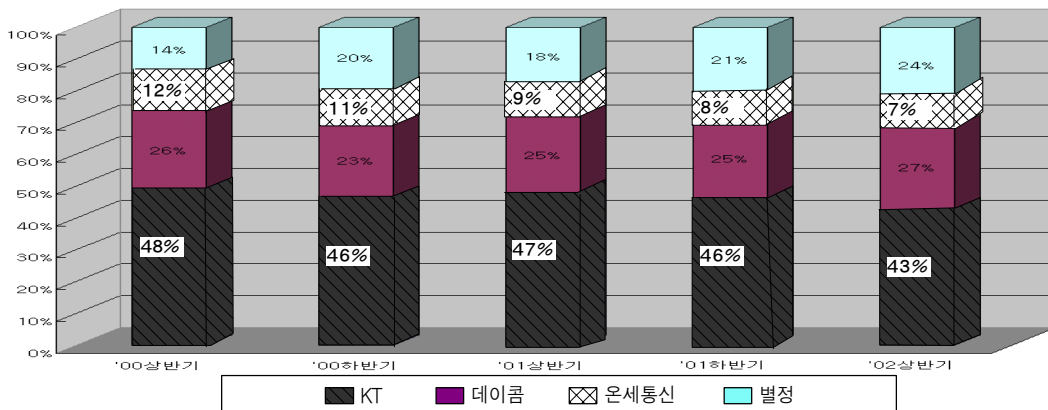
<유선부문 기간통신 및 부가 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

(단위: 백만원, %)

부가통신 서비스	'02 1Q	'03 1Q	전년동기 대비	유선부문 기간통신	'02 1Q	'03 1Q	전년동기 대비
전체	720,464	811,233	12.6	전체	1,697,361	1,470,976	-13.3
인터넷접속 및 관리	180,779	156,778	-13.3	시내	412,789	383,940	-7.0
정보제공	245,577	372,017	51.5	시외	418,347	314,210	-24.9
기타부가	294,108	282,438	-4.0	국제	321,064	211,405	-34.2
				기타	545,161	561,421	3.0

(자료) 정보통신산업협회, 「2003년 4월중 정보통신 품목 동향」

<국제전화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정보통신부

- 2002년 중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연평균 비중이 전체 서비스업 지수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 2003년 1/4분기 중에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지수¹⁾의 증가율이 전체 서비스업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세 역시 둔화되고 있음

<지식기반 서비스업 활동지수 증감률>

(불변, 전년 동월(기)비, %)

분 류	2002				2003			
	3월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전체 서비스업	8.6	7.6	6.8	8.0	1.8	3.4	1.5	0.5
정보통신서비스업	5.1	10.5	9.1	10.2	1.0	2.6	-1.1	1.6

(자료) 통계청, 「2003년 3월 및 1/4분기 서비스업 활동 동향」

1 서비스업 활동지수: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 한 것(1996=100). 서비스업 전체 부가가치를 1,000으로 하여 개별업종별 부가가치 구성비를 산정함

* 정보통신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관련 운용업이 포함됨

나) 사업자 동향

1) KT

KT는 기존 총매출규모를 유지하며 비용감소를 통하여 꾸준한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KT는 전화, LM, 전용회선 시장에서의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우려 속에서도 초고속매출의 꾸준한 성장으로 기존 총매출규모를 유지
 - 전화매출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무선대체 현상의 가속화, 국제전화시장의 요금인하 경쟁 등으로 매출액은 감소 추세에 있음. 단, 114번호 안내서비스, 지능망서비스가 전화매출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함
 - LM매출은 LM 요금 인하(2002년 5월), MM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LM통화량의 감소로 감소하였으나 LM접속료의 동반 인하로 수익성은 향상
 - 전용회선의 경우 데이콤의 파워콤망으로의 전환, 전용회선시장의 경쟁심화, 유사대체상품(매트로이더넷, VPN)의 확산으로 매출의 지속적 감소
 - 초고속시장의 포화국면에도 불구하고 VDSL, 무선랜을 중심으로 신규가입자를 흡수(32.6만)함에 따라 점유율 50%(총 533만)를 목전에 두고 있음
 - 특히, PCS 재판매 특별관측에 의한 가입자 증가로 무선재판매의 급증

- 영업이익은 전년동기수준과 비슷하였고 영업외이익은 직전분기수준에 근접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하였음
 - 영업이익은 LM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등의 수익 증가와 절대투자비 및 매출비중의 지속적 하향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꾸준한 감소로 약간 증가하였음
 - 영업외수익은 SKT 주식처분이익의 발생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고 영업외비용도 완전민영화과정에서의 교환사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증가에 의해 상승

<표> KT 실적 비교

(단위: 억원, %)

과목		2003 1Q			2002 4Q	2002 1Q
		금액	증감		금액	금액
			지난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영업 손익	매출	29,503	▽2.4	1.1	30,216	29,188
	영업비용	22,442	▽21.9	4.4	28,727	21,486
	계	7,061	374.3	▽8.3	1,489	7,702
영업외 손익	영업외수익	9,228	▽7.4	828.4	9,961	994
	영업외비용	2,998	7.9	74.6	2,778	1,717
	계	6,230	▽13.3	손실 → 이익	7,183	-723
당기순이익		9,739	45.7	94.2	6,683	5,015

2) 하나로, 데이콤, 파워콤, 온세통신

파워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선사업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실경영과 기업합병의 시너지를 통한 자구 노력을 추진 중

- 하나로통신은 영업손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영업외손실의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어 재무리스크가 증가
 - 두루넷의 해지 가입자들이 같은 방식의 하나로통신으로 전환함에 따라 초고속가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심화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로 매출기여도는 미약.
 - 영업손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영업외손익의 악화로 당기순손실 폭이 확대. 총 8,000억원의 채무부담.
- 데이콤은 매출감소와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파워콤인수에 따른 이자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순손실로 전환되었음
 - 모든 역무에서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영업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동기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

- 영업외수익의 증가율이 영업외비용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워콤인수(8,910억)에 따른 이자 증가(54억)와 투자제거차액 상각(57억) 등으로 영업외손실 폭이 확대되어 당기순이익이 순손실로 전환되었음
- 파워콤은 디지털방송사업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전용회선을 미래수익사업으로 선정하고 양 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
 - 회선임대, 초고속인터넷, 전력통신 134억(10%), CATV전송망 등에서 고루 성장하여 총 1,289억원 매출을 기록.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디지털방송사업을 미래수익사업으로 선정하고 전용회선 소매사업, 데이콤과의 협력등을 구상
- 두루넷은 법정관리신청이후 이탈하지 않은 13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무선랜을 통한 멀티미디어동영상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내실경영을 추진
 - 법정관리가 임박한 시기에 하나로통신으로 가입자이탈이 있었으나 법정관리 신청이후 가입자이탈이 진정.
 - 경비절감,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수수료 삭감등 영업비용의 절감과 전용회선사업부문 매각, 양질의 가입자구조로의 전환등 영업외수익의 제고에 노력중이나 7,814억원 부채규모에 따른 영업외비용으로 당기순손실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음.
- 온세통신은 초고속시장의 포화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인 50만가입자를 유지함으로써 생존기반을 확보
 - 파워콤의 HFC망 임대로 손익분기점인 50만 가입자에 도달하였으나 100만가입자를 보유한 시외전화부문에서 이동전화와 VoIP와의 경쟁에서 고전.
 - 4,200억원부채중 2,700억원 규모의 단기부채상환을 위한 자산담보부채권 발행이 거부되어 법정관리를 신청.

<표> 주요 유선통신사업자(KT제외) 실적 비교

(단위: 억원, %)

사업자 분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3 1Q	증감		2003 1Q	증감		2003 1Q	증감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
하나로	3,291	21.4	▽5.6	- 64	▽66.8	202억	- 538	10.4	252.4
데이콤	239.9	▽3.2	▽13.3	11.0	▽67.2	▽39.9	- 19.3	93억	421.6
두루넷	1,001	▽7.9	▽0.3	- 83	-	▽52.8	- 251	-	87.6
온세	1,060	30.3	-	- 64.8	13억	-	-144.3	13억	-
파워콤	1,289	8.5	4.5	309	-	-	86	▽55.7	-

3) SKT

SKT는 브랜드이미지를 바탕으로 매출수익성과 시장에서의 선도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데이터매출의 비중이 증가

- 통화료 인하와 무료통화의 증가, LM 접속료(10.3%)와 MM접속료 인하, 연휴, 방학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전분기에 비해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증가.
 - 그러나, 가입자성장(41만, 전년동기 대비 12.4%) 및 가입자당 월통화시간은 증가(2.2%). 또한, 무선인터넷과 부가서비스는 계절적요인과 순매출액으로의 매출기준변경을 극복하고 전분기 대비 증가.
- 영업비용이 인건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자제에 따른 마케팅수수료(특히, 모집수수료)의 감소, 광고비 감소 등으로 절감되어 영업이익의 성장으로 결실
- 영업외수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세기 기지국 통합완료에 따라 유형자산

- 처분손실이 제외되어 영업외손실은 직전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됨.
- 그러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이자비용등 금융비용의 증가에 따른 영업외 비용의 상승으로 영업손실의 폭이 증가함.
- 당기순이익은 직전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의 증가와 영업외손실의 개선에 의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회복

<표> SKT 실적 비교 (단위: 억원, %)

과목	2003 1Q			2002 4Q	2002 1Q	
	금액	증감		금액	금액	
		지난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영업손익	매출	22,430	▽5	16	23,660	19,320
	영업비용	14,920	▽16	18	17,730	12,690
	계	7,510	27	13	5,930	6,630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490	▽29	▽18	680	590
	영업외비용	1,490	▽65	75	4,240	860
	계	- 1,000	▽71.9	270.4	- 3,560	- 270
당기순이익		4,490	176	1	1,630	4,440

4) KTF, LGT

소극적 마케팅으로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수익성 소폭 상승

- KTF는 기존 가입자 유지에 중심을 둔 소극적 마케팅으로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수익성은 소폭 상승
- 소극적 마케팅과 상대적으로 열위인 브랜드파워로 가입자성장이 정체되고 요금인하, 접속요율인하, 매출회계규정변경, 계절적요인으로 음성매출이 감소하였음
 - 접속요율의 인하와 마케팅비용의 감소 등으로 영업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직전분기대비 4.5%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수준에는 미달함

- 영업외비용은 금융비용 증가, 외환차손 및 환산손실, 2G 기지국 통폐합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실, 보편적역무 손실부담금 증가 등으로 크게 상승하여 영업외손실이 줄어들지 않았고 당기순이익도 직전분기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 동기 수준회복에는 실패함
- o LGT는 음성시장에서의 저조한 실적과 무선데이터영역에서의 소극적 마케팅활동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비용의 동반 감소로 수익성은 향상
 - LM 요금 인하, 계절적 요인외에도 저가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모집전략과 무선인터넷사업에서 소극적 대처로 저조한 매출을 기록
 - 인건비 및 대손상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비용 총액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직전분기대비 27% 증가. 그러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영업비용이 아직 높은 수준이며 매출감소와 함께 영업이익 회복에 실패함
 -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의 동시 감소로 영업외손실은 전년동기수준 유지
 - 당기순이익은 서비스매출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비용과 영업비용의 감소로 증가한 영업이익에 의해 직전분기대비 4배의 성장을 하였으나 전년동기 수준에는 미달

<표> KTF와 LGT 실적 비교

(단위: 억원, %)

사업자 분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3 1Q	증감		2003 1Q	증감		2003 1Q	증감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
KTF	12,077	▽9.1	▽11.9	1954	▽16.0	4.5	922	▽45.7	0.5
LGT	5,183	0.4	▽11.8	445	▽44.2	27.5	178	▽58.4	394.4

2. 해외 통신서비스시장 동향

가) 시장 및 사업자 동향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는 통신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일부 시장의 경우 수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띠

- 2002년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는 9,250억 달러를 기록함
 -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02년 3,550억 달러 규모로 2003년에는 3,9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동통신서비스는 중국과 중부유럽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부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약 4,000억 달러이고 데이터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가 1,700억 달러로 유선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최근 무선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가 유선 음성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7년까지 통신시장에서는 무선 및 IP 관련 서비스들이 고속 성장을 기록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무선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7%에서 2007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월드컴 파산으로 인해 회계기준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특별비용의 증가로 큰 손실을 입었으나, 현재 이로 인한 충격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
 - Verizon과 AT&T는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Verizon은 약 39억 달러, AT&T는 약 6억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보임
- France Telecom(프랑스)은 자산상각 여파로 인해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
 - 2002년 207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 2001년 83억 유로의 손실보다 2.5배

정도 손실 규모가 증가함

- 모빌콤, 이퀀트 NV 등의 자산 손실 상각 때문으로 손실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증시 호황기 때 매입한 이들 자산들의 가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이를 상각하는데 183억 유로의 특별비용이 발생
- o Deutsch Telecom(독일)은 투자축소와 자산매각에 힘입어 8억 5천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2년 1분기의 18억 유로 적자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음

이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음

- o AT&T는 2002년 39억 달러 수준이었던 통신장비 지출을 올해 33억~35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음
 - AT&T의 장거리 전화 사업이 가격 하락과 경쟁 격화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베이비벨 등이 지역 전화사업자들에게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짐
 - 월드콤 등 라이벌업체들의 좌초로 기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AT&T가 투자 축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신장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o France Telecom(프랑스)은 부채 경감을 위해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150억 유로 규모의 신주를 발행
 - 2002년 상반기 700억 유로였던 부채는 2002년말 680억 유로 규모로 감소
 - 2005년까지 2만2,000명의 직원을 감원키로 하고, 2003년 내 전체 직원 25만7,000명의 5%에 해당하는 프랑스내 직원 8,000명을 포함해 총 1만3,000명을 줄이는 인력감축안을 발표
 - 2005년까지 경비절감 및 인력감축을 통해 전체 부채 중 300억 유로를 상환할 계획
- o Deutsch Telecom(독일)은 5만 5,000명의 인원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대대적

인 비용절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말까지 부채규모를 520억 유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힘

- 최근 소유한 러시아의 이동통신사업자인 MTS에 대한 지분 40%중 15%를 증권시장에서 5억 6,000만 유로에 매각한 데 이어, 지분 10%를 AFK 시스템에 매각함
- 1만 8,000개의 전화탑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보유중인 도이체폰크루름도 매각할 것으로 예상

나) 해외 통신시장 주요 이슈

유럽, 3G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o 음성 시장의 하강 국면에 대해 생존을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입 및 투자 확대
 - 2002년 말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제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로 확대되면서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 통신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o 허치슨3G(영국)가 3월 UMTS 방식의 3G 서비스를 선보인 지 불과 1달여 만에 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H3G(이탈리아)가 3월 중순부터 제공 중인 3G 서비스도 2주일만에 5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
 - 허치슨(영국)은 3G 서비스(UMTS)를 시작한 뒤 약 2만대의 UMTS 단말기를 판매하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허치슨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03년 말까지 허치슨이 예상한 100만 고객이 가입할 계획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o 영국에서는 허치슨3G에 이어 보다폰과 독일 T모바일까지 3, 4분기 중에

3G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초기 3G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3파전을 예고하고 있음

- 도이치텔레콤(독일)의 이동통신 자회사인 T모바일은 오는 3, 4분기 중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잇달아 3G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유럽 최대의 3G 이동통신 업체 도약을 노리고 있음
- 프랑스의 SFR도 올해 말까지 프랑스에서 3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시도
- 올해 허치슨을 포함한 유럽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이 제공하는 3G 서비스의 성공여부는 유럽은 물론 전세계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 유럽에서 처음 시도하는 허치슨의 3G 사업이 성공해야 최근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유럽 통신 업체들이 3G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게임 등 콘텐츠 업체들도 3G 서비스가 새로운 매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최근 유럽 3G 이동통신 업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미국에서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및 무선 데이터서비스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음

- 최근 미국 최대 전화서비스업체인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인하한 것을 계기로 광대역 인터넷 시장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
 - 버라이즌은 최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기존에 비해 10달러 인하한 월 34.95달러에 제공기로 함
- 와이파이(Wi-Fi) 기술을 개선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의 내실이 다져지고 있음

- 와이파이는 미국 광대역 인터넷 시장에서 디지털가입자회선(DSL)이나 케이블에 비해 뒤지지 않는 속도, 높은 신뢰성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
 - 최근에 선보인 서비스들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데이터 전송거리가 길어지는 등 와이파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시장에서 선점을 노리는 신생벤처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기능이나 품질을 개선한 서비스로 승부를 걸고 있음
 - 기업용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중인 타워스트림은 와이파이에 비해 데이터 전송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와이맥스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5G와이어리스는 뉴욕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Access Point와 사용자간 거리를 기존 100m에서 1km까지 늘린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월 39.95달러에 제공
- o 미국 이동통신 업계는 불황 극복을 위해 휴대폰으로 게임과 문자메시지(SMS)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양보다 질’로 승부
- 미국 신규 휴대폰 가입자가 2002년 대비 20~30%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 1인당 매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마케팅 정책을 전환
 - 2003년 1분기에 유치한 신규 가입자는 총 290만7,000여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대비 17% 감소
 - 신규 시장의 축소로 인해 미국 이동통신 업체들은 휴대폰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게임과 SMS 등 부가 서비스를 통해 1인당 매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
 - 미국 이동통신 업체들이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2002년부터 제로(0) 성장을 하고 있는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수요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 4G 서비스 및 FTTH 보급과 같은 광대역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일본 2위의 통신업체 KDDI는 최근 4G 이동통신을 겨냥해 여러 개의 무선 통신 규격을 동시 지원하는 무선칩 기술을 개발 중
 -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 하나의 칩에 3G와 4G, 무선랜 등을 모두 구현해 필요에 따라 변환해 쓸 수 있는 통합 ‘원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이 기술을 이용해 3세대 고속 데이터 통신 기술 ‘EVDO’ 기능을 내장한 프로세서를 설치한 시제품 칩 제작에 성공하였고 앞으로 4G, 무선랜 기능 등도 추가할 계획에 있음
 - 일본 총무성 및 다른 휴대폰 단말기·서비스 업체들과 공동 추진 중인 4G 규격표준화 작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량 이동 중에도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기술 개발 계획을 가짐

- 일본 NTT Docomo는 2005년까지 4G 관련 주요 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
 - 2002년 10월 일본 NTT Docomo가 국제통신연맹(ITU)이 규정하고 있는 4세대(G) 이동통신을 위한 데이터 전송 시험에서 하향(Downstream) 100Mbps, 상향(Upstream) 20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
 - 미국 HP와 함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휴대폰, PDA 등의 휴대 단말기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
 - 2000년 11월부터 4G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온 NTT Docomo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05년까지 4G를 위한 주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일본 NTT, 통신종합연구소, 소니 등도 4G 기술을 연구 중이며 3G와 4G, 무선랜 등의 통신 규격을 필요에 따라 바꿔쓸 수 있어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3G 또는 4G로의 이행을 유연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

- 4G 이동통신이 기존의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을 사용하는 3G 이동통신(20MHz)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은 약 100MHz의 주파수를 필요로 하고 빌딩과 산 등 자연지형과 다른 통신기기들과도 주파수 간섭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격적인 광통신망(FTTH:Fiber To The Home) 보급시대에 들어섬
 - 일본의 3월말 광통신망 가입자 수는 30만4900명을 기록
 - 1년 전에 비해 11배나 늘어난 수치이며 광통신망 가입자의 매달 순증가수가 지난해 1만5,000건에서 올해 4만 건으로 늘어나며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음
 - 초당 최고 100MB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광통신망은 ADSL보다 1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일찍부터 차세대 Broadband망으로 주목받아왔음
 - 최근 일본에서 광통신망의 월 이용료가 4,000~6,000엔으로 떨어지며 급격한 보급 속도를 보여 주목됨

- 고속인터넷서비스인 ADSL에 더해 초고속서비스인 광통신망이 일본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가)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두루넷 법정관리, 하나로통신의 유동성 위기로 경쟁력 약화

- 국내에서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한 두루넷이 2003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표출된 초고속인터넷 후발 사업자 구조조정 이슈는, 업계 2위의 하나로통신의 계속된 당기순손실 기록 등과 맞물려 통신시장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인 두루넷은 2003년 1/4분기 매출 100억원, 당기순손실 251억 7,800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가입자 증가세 둔화가 나타난 하나로통신은 5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
- 최근 VDSL 서비스가 본격화에 따라 2003년 하반기중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시장구도 변화가 예상 됨
 - KT가 VDSL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광대역 사업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함
 - 2003년 VDSL 투자금액은 3,681억원, 137만 7천 회선으로 잡혀 있으며, 2년여 동안 109만 회선, 113만회선을 추가로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 KT의 VDSL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KT는 VDSL 도입에 다른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하나로통신 대비 가입자 유치가 용이해 질 것임
-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KT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발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외자유치,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됨

나) 선발 사업자들의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 욕구 증가

유무선 통합서비스

- 무선 접속망 기술 발전으로 유선의 품질과 무선의 편리성을 결합한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음
- 유무선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현재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강화에 대한 공정경쟁 대책마련이 필요
 - 2003년 3월중, KT가 무선 LAN 과 KTF의 1X EVDO를 결합한 연계상품이 출시되면서 유무선 통합서비스 상품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이동통신사업자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결합상품 금지 조항을 들어 반대 논리를 제시했으며 KT는 요금할인 없는 연결 상품임을 주장하여 상품 출시를 시도하였음
- 현재 유무선 통합서비스는 이용에 애로요인이 많고 기술진보가 느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상품 전략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2.3GHz 서비스 환경을 대비한 선도 서비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통합서비스 환경하에서는 유무선 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유, 무선 통합서비스 출시를 통해 매출 증가를 꾀할 것이며,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사업자는 콘텐츠 중심의 유, 무선 통합서비스를 시도하여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발판을 다지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관련이슈: 2.3GHz 서비스 제공

- 2.3GHz 대역을 이용한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속, 이용불편성, 부담되는 요금과 2.4GHz대역의 무선랜 서비스의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커버리지의 제한

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현재 주파수를 이용한 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임

- 현재 3G 이동통신과 기존의 무선랜과의 관계분석 등 각계에서 다각도로 기술, 시장 등의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i-Burst, flash-OFDM, HPI 등 여러 가지 기술표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충분한 이동성과 단말기의 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 부피 및 배터리 등 기능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 기존 전화역무는 유선음성에 국한되지만, VoIP 기술을 이용한 음성서비스는 음성, 데이터, 고정, 이동의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전화역무에 적용되는 지역구분이 필요 없고, 유선(고정)에서도 이동성 구현이 가능한 기존 전화역무와는 구별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음
- 기존 역무구분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역무를 신설해야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방법에는 사업자간 이견이 존재함

구 분	기간통신역무 내	전화역무 내
계 위	현행 기간통신역무(시행규칙 3조)의 전화, 전용회선, 주파수와 동일한 수준의 역무로 보아야 함	현행 기간통신역무의 전화역무 내에 인터넷전화로 신설
개선후 기간통신역무	전 화(시내·시외·국제), 전신, 주파수, 회선설비임대, 인터넷전화	전화(시내·시외·국제·인터넷전화) 전신, 주파수, 회선설비임대,

- 인터넷전화는 가입자가 인터넷회선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점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가입자구간에서는 초고속인터넷접속(xDSL, CATV, WLAN,

휴대인터넷 등), 이동전화 인터넷접속, dial-up 접속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향후 기술발전에 의하여 PON 등 새로운 접속방법의 출현을 예상

LM(Land to Mobile) 통화시장 개방

- 시내전화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는 LM통화를 통해 각각 통화료 수익 및 접속료 수익을 얻어왔으며, 이러한 수익흐름에 소외되어왔던 시외전화사업자가 시외교환기를 통해 LM통화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시작함으로써 LM시장 개방논의는 전개됨
- 시외전화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 현재 LM통화시장은 소비자가 LM통화시 사업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미국, 호주 등의 국가가 80년대 초부터 LM시장의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OECD 30개국 중 19개 나라에서 LM시장에 사전 선택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시내전화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 시외중계사업자의 교환기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통신망 효율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 현재의 왜곡된 요금 구조하에서는 후발 사업자 보호라는 정책이 역으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로 이루어진 인프라를 수익원 창출을 위해 단순 참여하는 것은 '무임승차'가 될 수 있음

MVNO 도입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ion)제도는

주과수 면허가 없는 특정 사업자가 통신망 보유업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비자들에 무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칭함

- MVNO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주과수 여유분을 활용하여 특별한 콘텐츠와 연계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는 틈새형 서비스 발전이 예상됨
 - 영국의 경우, 버진모바일은 지난 99년 11월부터 이동통신망사업자인 원투원과 공동으로 MVNO 관련 서비스를 시작 지난 3분기까지 가입자수 200만명을 돌파했음
 - 일본의 경우, 세이콤은 지난해 4월부터 2대 이동통신사업자인 KDDI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MVNO서비스를 시작했음

- VoIP, LM시장 개방, MVNO 도입 등 경쟁에 미치는 영향, 망 효율성,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